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夜話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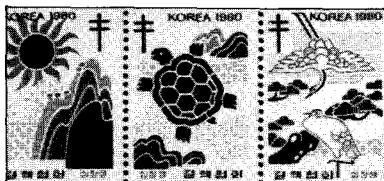
—다채로운 판촉봉투(FOLDER)의 출현—

(1980—1983년도 발행분)

이창성/크리스마스 썰 동호인, 수집가

1980년

1. 도안



동양 고유의 십장생 도안을 5종류의 썰로서 분류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연쇄 도안이었으면 더욱 박력있는 도안이 됐을텐데 아쉬움을 갖게 하는 도안이다.

십장생의 기원은 오행설에 유래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경사로운 것을 상징하며 결혼식의 병풍에도 이 그림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해, 산, 구름, 바위, 소나무, 물, 거북, 학, 사슴, 불로초 등은 경사스러운 사물로써 썰의 도안에 매우 적합하며, 도안 자체를 근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매우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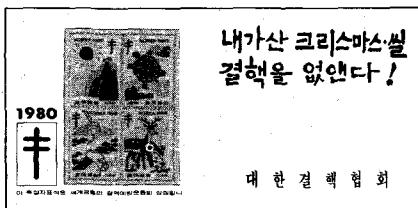
이한 인상을 지니게 한다. 사슴의 도안에는 불로초를 상징한다고 영지(靈地)버섯이 하부에 군생하고 있는 도안이며, 썰에서 가장 많은 영지가 묘사된 썰인 듯 하다.

우표나 썰은 원도에 있어서 대개 9배, 16배로 확대되어 그려지며 각각 우표나 썰의 크기로 축소되어 제판되는 것이니 원도에서는 박력있는 것이 축소 단계에서 빛을 잃고 마는 일이 허다하다.

2. 전지(10x5=50매)

5종의 썰이 10조로 인쇄된 단 한 가지의 전지만이 제작되어 있다. 호소문이라든가 도안가, 발행자, 영문의 CHRISTMAS SEAL 1980 등은 1979년과 대동소이하다. 십장생의 설명이 전지의 좌측에 위에서 아래로 2행으로 아래와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십장생은 장생불사한다는 열가지의 물건으로 해, 산, 구름, 물, 바위, 거북, 소나무, 학, 사슴, 불로초를 말하며 인간의 축복을 뜻한다>

3. 판촉봉투 (Folder라고 호칭되고 있음)



지난해까지의 단색 혹은 2색인쇄를 지양하여 썰과 같은 색도를 취급하고 썰과 같은 크기의 5종 중 4종만을 田形으로 봉투 표면에 인쇄한 아담한 봉투는 매우 호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봉투 표면의 호소문도 강조하는 곳은 적색으로 하고 감탄사까지 인쇄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면에는 썰의 유래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썰의 사용법을 도시(圖示)까지 하고 있으며, 결핵환자를 돋자는 글자가 영어로서 설명까지 들어 있으니 결핵협회의 고심이 판촉봉투에 압축된 듯하다. 대개 10매의 썰을 넣어서 봉투표면에는 증정(贈呈)이라는 고무도장이 찍혀 배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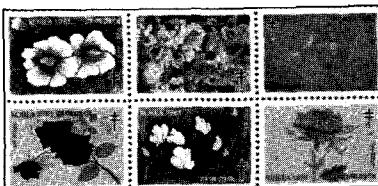
4. 각종 자료 (DATA)

구 분	내 용	비 고
발행년도	1980	
도안내용	십 장 생	
종 수	5종	
도 안 자	전 희 한	
인 면	22 × 32mm	
천 공	단식점공 11 1/2	
색 · 판	4도 평판	

전지구성	10 × 5=50
판매가액	30원
인쇄소	상문사인쇄소
발행매수	7,840천매
판매실적	94%

1981년

1. 도안



이 해의 도안은 9종의 꽃을 주도안으로 하고 있는 썰이나 1982년이 로버트 코호(세균학자, Robert Koch, 독일, 1843~1910)가 결핵균을 발견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 까닭에 처음의 썰에는 코호의 초상화와 현미경, 결핵균을 도안했으며, 도안의 상부에는 <로버트 코호 결핵균 발견(1882) 100주년기념>이라는 글이 보인다. 나머지 9종의 꽃은 국화(菊花), 도화(道花), 시화(市花)를 그리고 있으며, 전국의 아동들 응모작품중에서 선출하고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부부터 차례로 보면 (1) 무궁화—나라의 꽃, (2) 백일홍—전북, 경북의 도화이며, 이 도안은 자세히 보면 의인화한 나비가 나르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3) 철쭉—강원도의 도화이다. (4) 연산홍—제주도의 도화이며, 붉은 화로를 쏟아 놓은 듯 불타고 있는 듯하다. (5) 개나리—서울의 시화이

며, 경기도는 도화이기도 하다. 농청색의 배경에 개나리꽃이 마치 은하수와 같은 인상을 받는 것 같이 묘사하고 있다. (6) 장미—경남의 도화이며, 황녹색의 배경에 빨간 장미는 유화와 같은 인상을 받으나 강력한 인상을 주는 꽃이기도 하다.

(7) 백목련—충북의 도화이며, 농청색 배경에 봉오리에서 개화하기 직전의 꽃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8) 국화—충남의 도화로서 창조주가 마지막으로 만들어 냈다고 전하여 내려온 꽃으로 그 종류도 많으며, 원예종이 수없이 창조되어 있는 무한한 국화의 변화는 해마다 그 애호가가 많아지고 있다.

(9) 동백—부산의 시화이며, 전남의 도화이기도 하다. 한 종류의 동백을 그린 것이 아니고, 몇 종의 동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기발하다. 남해안의 바닷가에 군생하는 동백은 매우 아름다우며, 바다와 깊은 관계가 있는 꽃으로 손꼽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확대경으로 살펴보면 설명이 들어 있는 셀로서 교육적인 면에서도 권장할 수 있는 셀이며, 디자인은 전년도 셀 도안가인 전희한 씨이다.

2 생일 선물로 받은 현미경이 세계적인 세균학자를 탄생

로버트 코호는 1843년 12월 11일에 독일(당시 프로슈) 하르쯔지방(유명한 시인 하이네의 「하르쯔기행」)의 크라우스탈이라는 조그마한 두메산골에서 태어났다.

코호는 13형제중 3번째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시절에는 탐험가나 선의가되어 세계일주를 꿈꾼 낭만적인 시절도 있었다.

19살때 괴팅겐대학에 입학하여 화학과 병리학을 전공하였다. 1866년 23살때 대학을 졸업하여 뜻하지 않던 정신병원의 조수를 하였으며, 군의관을 경유하여 전쟁이 끝난후 결혼. 이름도 없는 작은마을의 개업의로서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해의 생일 선물로써 현미경을 부인에게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세계적으로 위대한 세균학자가 되었으니 현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처음에는 가축의 질병에서 세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프랑스의 파스퇴르는 미생물로 인한 발효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영국의 리스터는 소독법을 발견하는 등 의학의 발달이 현저한 때였다.

1876년에 가축의 탄저병이 세균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프랑스의 파스퇴르가 이것을 확증하여 코호는 무명의 시골 의사에서 유명한 인사가 된 것이다.

1878년에는 화농의 원인을 추종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여러가지의 업적이 인정되어 1880년 베를린의 위생국에서 일하게 되었다.

1882년 3월 24일 베를린의 생리학회(生理學會)에 단2항의 짧은 논문으로 결핵균발견을 발표하였다.

1890년에는 투베르쿨린도 발견하여 결핵진단의 방법으로 현재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1885년에는 베를린대학 교수, 1891년에는 새로이 창설된 전염병연구소장에 임명되었다. 1905년에는 결핵균발견의 공적으로 노벨의학상을 받았고 1910. 5. 27 협심증으로 사망하였다.

3. 전지(10 × 5=50매)

가로형 썰인 까닭에 전년도 것을 90도 회전시킨 것으로 천공방식으로 우표수집 가라면 같은 인쇄소에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전지 구성이다. 전년도와 약간의 차이는 호소문 옆에 우측으로 <모든 우편물과 선물에 X-마스·씰을 붙입니다>. 라는 문구가 하늘색과 적색의 두종으로 인쇄되어 있다.

전지 왼쪽 상부에서 하부에는 가로쓰기로 <씰 도안 <국민학교아동 현상옹모 당선작> <각 시도의 지정꽃> 개나리: 신미정, 백목단: 차재복, 장미: 박말식, 동백: 이은선, 국화: 김종운, 연산홍: 문복경, 철쭉: 권미자, 백일홍: 손지령, 무궁화: 최현주”등 상세한 자료가 인쇄되어 있다.

4. 판촉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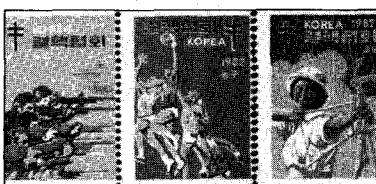
미스(Miss) 대한결핵협회인 아가씨가 미소지으면서 금년도의 씰 전지를 보이고 있는 사진으로 씰의 판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도안으로서 이 판촉봉투가 최고조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축소는 되었다고 하나 씰의 전지를 기묘하게 제시하는 연출에는 박수를 몇 번 보내도 아까운 것이 없다.

5. 각종 자료 (DATA)

구 분	내 용	비 고
발행년도	1981	
도안내용	코호의 초상과 각 시 도의 지정꽃	국민학교 아동현상 옹모작품
종 수	10	
도 안 자	현상보집	
인 면	22 × 32mm	
천 공	단식 11 ½	
쇄 색	4도	
판 식	평판	
전지구성	10 × 5=50매	
판매가액	40원	
인 쇄 소	상문사인쇄소	
발행매수	11,200천매	
판매실적	94%	

1982년

1. 도안



크리스마스 씰에 운동경기종목이 10종이나 채택되었으며, 등장인물이 거의 외국인이라는 것을 봐서 올림픽의 경기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1년 10월 30일에 각국의 치열한 유치운동을 물리치고 38선에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갑격이 씰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궁, 레슬링, 축구, 싸이클, 육상, 역도, 사격, 농구, 권투, 수영에서 양궁

1종만 제외하고 외국인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유화조로 묘사하고 있다.

도안 색채도 썰에 적합하게 밝은 색을 쓰고 있어 매우 평이 좋은 썰이라고 할 수 있다. 도안자는 오동환 씨이다.

2. 전지($10 \times 5 = 50$ 매)

전년도 전지를 90도 회전시킨 것이고 1980년과 같은 전지구성을 하고 있다. 천공방식도 상발이 보통이나 하발도 존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전지이다. 호소문, 광고문, 도안가, 인쇄소, 발행처 등은 전년과 동일하다.

3. 판촉봉투



표면의 좌측에는 원형안에 썰과 같은 색채로써 10종이 1매씩 10각형상에 배치 시킨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을 집중시키는데 충분한 나열방식이라 하겠다.

복십자와 대한결핵협회의 하부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인쇄하였다는 것이 전년도에 비하여 변화한 점이다. 이면은 전년도와 같다.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판촉봉투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1매만 입수하였던 것이니 지나가면 입수하기가 매우 힘드는 것이 판촉봉투라고 할 수 있겠다.

4. 각종 자료 (DATA)

구 분	내 용	비 고
발행년도	1982년	
도안내용	올림픽경기종목	
도안자	오동환	
종 수	10종	
인 면	22 × 32mm	
천 공	단식점공 11 1/4	
쇄 색	4도	
판 식	평판	
전지구성	$10 \times 5 = 50$ 매	
판매가액	50원	
인쇄소	상문사인쇄소	
발행매수	13,650천매	
판매실적	95%	

참고문헌

- 1). GREEN WORLD SEAL CATALOGUE, The chrishtmas seal and Charity stamp society, chicago—U. S. A. 1983, by Henry Irwin
- 2). 대한결핵협회 30년사 (1983— 대한결핵협회 발행)
- 3). 원색한국우표도감 (1991—우문관 발행)
- 4). 월간「우표」 1979년 12월호
- 5). 결핵균발견의 발표일자에 대하여는 유 철 박사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

마음과 마음을 잊는
크리스마스 썰 운동